

고성군, 블루베리 진빵 개발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일자 : 2016-11-17 12:54:59



경남 고성군이 개발한 블루베리 진빵. (사진제공=고성군청)

경남 고성군은 16일 하일면 용마루농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블루베리 진빵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진빵은 밀가루와 팥으로 만들지만 블루베리 진빵은 고성에서 생산되는 쌀과 찰보리, 옥수수, 우리 밀에 블루베리를 35% 이상 첨가한 의농식품이다.

군은 블루베리 진빵 개발로 홍수 출하를 조절해 가격하락을 막고 항기능성 건강식품을 원하는 변화된 소비패턴에 부응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8일부터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고성농업인의 날' 기념 고성 농산물 한마당 행사에서 블루베리 진빵 무료시식을 통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김진현 고성군농식품개발과장은 "농식품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는 의농식품개발을 통해 고성군이 대한민국 농식품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루베리는 미국 뉴욕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눈의 피로예방과 항산화 작용이 우수해 각종 성인병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성옥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17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